



조계종 포교원 · 현대불교 연중캠페인

# 책 보고 그림 그리고... 왜! 꿈 동산 온거 같아요

## 6 어린이/청소년 정보마당

**충북 옥천군에서는**  
이원묘목축제가 열린다. 3월 23일부터 25까지 열리는 옥천군 이원면 묘목유원지 일원이다. 주요 행사로는 묘목전시연회, 묘목사진전시회, 묘목전시장, 지역특산물 판매, 분재판매, 가족건강걷기대회, 농악대호, 수석·분재 전시회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043)733-0073

**중앙대학교 아트센터에서는**  
한중 수교 15주년을 기념해 한국의 청소년 및 일반인들로 하여금 중국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갖게 하고 교류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4월 14일 (사)한중학술문화교류협회 중국어말하기대회위원회 주최로 중국어 말하기 대회가 열린다. 접수기간은 3월 30일 까지. 자세한 사항은 문의.(02)761-9928

**대한불교소년소녀회 합창 무용단은**  
제15기 합창단과 무용단원을 모집하고 있다. 신입단원은 1차 자유곡, 2차 면접으로 선발하며, 매주 토요일 오후에 오디션이 있다. 응시자격은 초등학교 3학년~중학교 2학년이다. (02)725-7527

**부산 해양자연사박물관은**  
화려한 자태를 자랑하는 금붕어, 열대관상어와 단아한 모습의 우리나라 민물고기까지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기획전 '내 얼굴 어때요?'를 마련했다. 5월 31일까지 특별전시실에서 진행되는 전시에서는 쉬리, 진주린, 단장, 스포티스가 등 30여종 400여미를 관찰할 수 있으며 부대행사로 준비된 퍼즐 맞추기, 먹이주기체험, 참여게임, 포토코너 등도 즐길 수 있다. (051)553-4944-5

**경희대학교 혜정박물관에서는**  
8월 31일까지 어린이를 위한 고지도 체험전 '홀름빈과 마조리, 바닷길을 열리라'를 특별전시실(4층)에서 연다. 박물관은 월-금요일과 매월 넷째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문을 연다. 관람료는 무료. 단, 지도 액자를 만들어 보는 프로그램인 '지도 제작자의 하루'는 유료로 운영된다. 예약 및 문의는 홈페이지(http://oldmaps.khu.ac.kr)로 하면 된다. (031)201-2013

※ 정보마당에 소식 전할 학교나 단체는 (02)2004-8282로 연락주세요.

"어린이 여러분, 강남역에서 만나요." 서울 지하철 강남역은 약속의 장소다. 또한 사무실이 많아 어른들의 구역이기도 하다. 이런 곳에 오직 어린이청소년만을 위한 공간까지 존재할 수 있을까. 대답은 '그렇다'다. 강남 언덕에 위치한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관장 이숙현)이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6월 개관해 아이들의 꿈동산이 되고 있는 도서관을 3월 10일, 직접 방문했다.

4층 건물에 자료실과 강당 멀티미디어실 등 13개 공간을 갖추고 있는 도서관 안으로 들어가면 가장 먼저 1층 어린이자료실을 이용할 수 있다. 이날은 주말이라 일찍부터 아이들이 이곳저곳에서 책을 읽고 있었다. 아직 학교에 다니지 않는 유아부터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연령도 다양하다. 빼곡하게 책이 꽂힌 책장에는 유난히 알록달록한 그림책들이 많다.

"아빠, 또 책 읽어줘."  
"강아지 풍(연정생 작)'을 재미있게 읽은 은영이(7)는 아빠 박진석(39·서울 서초동)씨에게 다른 책을 골라달라고 졸랐

으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것이 아니라 사후 프로그램으로 체험을 함께 할 수 있다는 데 있다. '색깔의 여왕'의 경우, 이야기가 끝나고 아이들이 흰 종이마다 자신이 원하는 색깔의 크레파스로 마음껏 그리기 놀이를 하며 색깔의 의미를 배워 나가는 것이다.

"엄마, 나 보라색, 보라색~."  
현민(5)이가 좋아하는 색깔을 잡지 못해서 때를 썼다. 그러자 옆에 있던 영은(6)이가 자신이 들고 있던 크레파스를 선포 "자"하고 건넸다. 역시 공동 작업이다 보니 아이들끼리 부대끼면서 양보도 배워간다.

지금 어린이청소년도서관을 찾으면 영국문화원과 함께 진행 중인 영국 어린이도서 일러스트레이션 전시회 '마술연필'도 관람할 수 있다. 4월 2일까지 열리는 이 전시에서는 안젤라 바렛, 패트릭 벤슨 등 유명 동화 삽화작가 70여명의 상상력 넘치는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다. 또한 동화책 역시 200권 넘게 볼 수 있어 영어 원어 동화책을 보고 싶었던 아이들에게는 절호의 기회다.

### 유아부터 저학년까지 연령 별로 다양한 책 빼곡 구연동화 들으며 책 내용 직접 그림 그리기도 홈페이지 접속하면 영어 중국어 한자 교육까지

다. 그런 아이에게 책을 골라주는 박씨의 태도가 다소 어설플지만 아이도 어른도 모두 흐뭇한 표정이다. 평소 아이와 함께 할 시간이 없어 미안했다는 박씨는 "한 달에 두세 번씩 아이 손잡고 함께 책을 고르고 읽을 수 있어 좋은 것 같다"고 말했다.

한참 책을 읽던 아이들이 오전 11시가 되자 갑자기 자료실 한쪽에 마련된 '이야기방'으로 몰려갔다. 매주 토요일마다 벌어지는 구연동화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다.

"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색깔나라 여왕님 이야기예요."  
구연동화 전문 선생님인 아이들에게 예쁜 목소리로 '색깔의 여왕' 이야기를 시작한다. 그날 책을 읽을 때 보다 훨씬 생동감이 있어 그런지 제멋대로 성격인 색깔 여왕님이 자기 마음대로 색깔 신하들을 부리다가 혼쭐이 나는 이야기에 아이들이 푹입한다.

이야기 읽어주기의 좋은 점은 일방적

이날 전시를 찾은 건우(서울 운현초 3)는 "책 속의 예쁜 그림들도 좋지만 특히 한 액자들도 많이 신기하다"며 신이 났다. 다른 나라 문화를 접한다는 것은 아이들에게 가슴 뛰는 경험이기도 건우는 전시장 이곳저곳을 보느라 정신이 없었다.

어린이 보다 조금 큰 언니오빠들도 도서관을 충분히 재밌게 이용할 수 있다. 청

###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서 놀아볼까?



서가 놀이를 확 낮추고 어린이에 맞는 책·결상을 마련해 놓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컴퓨터로 모르는 정보를 검색하는가 하면(왼쪽), 선생님이 들려주는 구연동화도 재미있다(가운데)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를 한 편의 그림으로 표현할 수도 있다(오른쪽)

소년 시설로는 멀티미디어실 마련된 다양한 시청각자료들과 컴퓨터실이 눈에 띈다. 도서관에서 진행되는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있다. 도서관학교, 청소년 테마도서 전시, 도서관과 함께하는 봉사활동, 청소년 독서 동아리 등이 바로 그것이다. 어린이청소년도서관은 특히 3월 말부터 '청소년 독서동아리'를 시작, 중

를 방문해보자. 홈페이지 접속을 하면 영어, 중국어, 한자 공부까지 가능하다. 아직 칸텐츠가 많지는 않지만 점차 늘려갈 계획이라 기대할만 하다.

이쯤 되면 다양한 자료와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청소년도서관을 찾기에 부모님들은 무엇을 준비하면 좋을지 궁금해진다. 안정희 사서 선생님이 몇 가지 귀띔한다.

"청소년들은 교육을 어느 정도 받았기 때문에 혼자 와서 이용하는 데 별 무리가 없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에게 기본 예의를 알려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죠. 국립도서관의 책은 모두 함께 이용하는 것이라 아이들에게 일러주세요. 다른 친구들을 양보해가며 이용해야 하는 사실이라는 것도요.

또 부모님들께서 아이들 책에 관심이 많으셔야 해요. 아이들이 골라 읽을 수 있는 책은 한정적이예요. 올바른 독서법을 지도하시려면 부모님께서 아이의 독서 실태를 파악하고 사서와 부모님이 함께 협력, 책을 가까이 하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글·사진=김강진 객원기자

## 알기쉬운 佛敎 儀式 新刊 通用佛敎儀範 案内

## 알기쉬운 齋禮 儀範 新刊 通用齋禮儀範 案内

귀의상보하옵고 불교란 어떤종교인가? 깨달음의 종교이다. 불교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업과에 의한 윤회를 믿고 보살행을 실천하여 성불하기를 염원하는 종교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방하는 불제자로서 의식법전의 순서의 어려움이 많아 수행하는데 우왕좌왕 하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라는 것을 실감하고 모든 불교의식집을 참고로 하여 의식을 간편하게 편입하여드립니다.

의식이란 보는 이에 따라 甲論乙說이 있었으나 수행 초심자가 어디서 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막막할 때 이 의식집을 펴면 편 페이지를 찾지 아니하고 모든 의식을 집전할 수 있도록 편입되어 있습니다.

▶총 1099페이지 법보가 ₩45,000



천지지만 만물지중엔 유인이 최귀하고 유 만물지 중엔 유인이 가장 귀하니 사람이 있으면 예(禮)가 있고 예(禮)가 있으면 의식(儀式)이 필요한 것입니다.

불교의 1700년 역사속에 祖師님께 집필하신 의식집이야말로 참으로 고귀하고 원만한 의식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시대의 변화에 따라 한문으로 된 의식집을 가지고는 어느 것을 먼저하고 어느 것을 뒤에 하는지 순서를 몰라서 우왕좌왕하는 때가 비일비재(非一非再)합니다. 또한 매장문화에서 화장문화로 빠르게 변해가는 오늘날의 현실 속에서 제례의식을 현실에 맞도록 모든 불교의식집을 토대로하여 초보자라 하더라도 집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총 1180페이지 법보가 ₩45,000

- 통용불교의법 특징
- 불보살 모든 불공의식은 불공의식 대로 편입되었으며 제목만 찾으면 모든 불공을 모실 수 있는 것이 이 책의 특징인 것입니다.
- 제1장 승주편
  - 제2장 예경편
  - 제3장 전각예경편
  - 제4장 불공편
  - 제5장 모든법회
  - 제6장 방생
  - 제7장 재물보살법랑의식
  - 제8장 파불의식
  - 제8장 점안편
  - 제9장 이운편
  - 제10장 수계편
  - 제11장 고사편

대한민국 불교 교단에 계시는 모든 스님들께 소속 법진이 합장하고 고개 숙여 인사를 올립니다. 소송이 2년 동안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2권의 불교의식집을 출간하여 모시오니 사용해 보시고 잘못된 부분은 지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루 마하반야바라밀

編·著者 法眞 李承都

- 제1장 시식편
  - 제2장 장의편
  - 제3장 다비편
  - 제4장 四十九齋
  - 제5장 재공편
  - 제6장 기제사
  - 제7장 靈魂結婚壇
- 입재(入齋) 삼우재(三虞齋) 초재(初齋) 이재(二齋) 삼재(三齋) 사재(四齋) 오재(五齋) 육재(六齋) 칠재(七齋)
- 상주권공 삼정례 천수다라니 지장정 영산대재 괘불이은 건회소 영산적법 영산각배 운수상단 운수중단 배송(拜送) 예수신왕생칠제(預修十王七齋)